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11 (수요일)

[오늘의 한 줄]

미국 물가가 세 달 연속 강하게 오르며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p 인상)' 공포가 커졌지만, 코어위브의 깜짝 실적과 앤트로픽 상장 흥행 소식이 반도체 매수를 부르며 코스피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5.6% 급등하며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11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375.36 (+136.23, +2.60%). 이틀 연속 상승. 0.56% 내린 5,209.71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우상향, 장 후반 5,377.99까지 올랐습니다. 연중 고점(6/22 9,114.55) 대비 -41.0%, 하반기 고점(9/23 7,080.92) 대비 -24.1%. [계산]
- 코스닥 705.10 (+37.49, +5.62%). 5거래일 만에 700선 회복, 고점에서 마감.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정지) 발동.
- 공포지수(VKOSPI) 52.76 (-9.33%). 전날 -8.98%에 이어 이틀 연속 큰 폭 하락.
- 반도체: 삼성전자 206,000원 (+3.57%), SK하이닉스 127.7만원 (+5.36%), 삼성전기 923,000원 (+4.65%).
- 전력기기 3종: 효성중공업 179.3만원 (+2.69%), HD현대일렉트릭 405,000원 (+2.79%), LS일렉트릭 121,900원 (+0.74%).
- 상승 575개, 하락 296개 종목. 원화는 서울 외환시장 마감 기준 1,333.6원 (-3.9원).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16조2,979억원, 코스닥 5조2,936억원.

출처: 연합뉴스 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135351008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6,588억원(이틀 연속 순매수, 장 초반 매도에서 낮 12시께 매수로 전환), 기관 -4,817억원(금융투자 -5,210, 투신 +752, 사모 +386, 보험 +193, 연기금등 -990), 개인 -7,157억원, 기타법인 +5,421억원.
- 코스닥: 기관 +3,133억원(투신 +1,431, 사모 +607, 연기금등 +506), 개인 -1,854억원, 외국인 -1,320억원.
- 누적(9/23부터 32거래일, 네이버 기준 집계 이어 계산):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8조4,162억원, 코스닥 약 1조6,936억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각에 따라 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134500008

■ 미국 시장 (11/10 화요일 마감)

- 물가 충격에 3대 지수 하락: 다우 -0.30%, S&P500 -0.38% (7,520.93), 나스닥 -0.74% (25,065.87),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35% (9,998.33).
- 엔비디아 -5.47% (168.89달러)로 이틀 연속 급락. 젠슨 황 조사 여파. 마이크론 -1.10%, 샌디스크 -2.99%, SK하이닉스 미국 예탁증서 -3.51%, 마이크로소프트 -2.20%, 오라클 -1.51%, 팔란티어 -0.22%, 아이온큐 -0.99%, 코어위브 -0.51%. 아마존 +1.48% (270.87달러), AMD +1.30%.
출처: 연합뉴스 종합(위 링크)

■ 물가와 '빅스텝' 공포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0.4%, 변동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가 +0.3% 올라 둘 다 시장 예상을 0.1%p 웃돌았습니다. 세 달 연속 강한 상승입니다.
- 발표에 앞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 물가가 0.3% 부근이거나 그 이상이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0.5%p 인상(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했고,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 이 영향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루에 0.10%p 뛰었습니다 (아래 채권 항목).
출처: 연합뉴스 종합(위 링크)

■ 엔비디아 사건 진전

- 이사회가 워싱턴의 유명 로펌 워크텔 립턴을 선임해 독립 조사를 맡겼습니다. 조사 총괄은 준 김 전 뉴욕남부연방지검장 대행. 회사 기밀이나 국가안보가 침해됐는지가 쟁점입니다.
-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를 '최선호주'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10/2 지명 후 주가 25% 이상 하락). 양당 의원들이 조사를 위협하고 중국 매파가 칩 수출규제 강화를 밀어붙이는 등 워싱턴에서 정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 수요일 미국 개장 전 거래에서는 +5.3% 반등 중. 11/17 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분기점입니다.
출처: 폴리티코, CNBC
https://www.politico.com/news/2026/11/11/jensen-huang-washington-problem-01160374
https://www.cnbc.com/2026/11/11/nvidia-stock-jensen-huang-affair-china.html

■ 코어위브 3분기 실적 (11/10 마감 후 발표)

- 매출 36억6,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급증, 시장 예상(35억5천만달러) 상회. 영업이익 2억700만달러 (+298%). 다만 7억9천만달러 순손실. 2028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
- 최근 신용 위기 우려의 중심이던 회사라 'AI 인프라 투자의 풍향계'로 불립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7.9% 급등했고, 이 소식이 한국 반도체 투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종합(위 링크), CNBC

https://www.cnbc.com/2026/11/10/coreweave-crwv-q3-earnings-report-2026.html

■ 앤트로픽 IPO: 수요 몰려 공모가 상향 검토

- FT는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상장 주관사(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들이 로드쇼 첫날 강한 수요를 확인하고 공모가를 당초 범위(70~78달러)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 기업가치는 최대 1조5천억달러 이상, 총 조달액은 1천억달러 초과가 거론됩니다. 전날 보도된 조달 규모 전망(최대 625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로, 수요에 따라 규모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상장은 현지 11/19 예정.
출처: 연합뉴스(FT 인용)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059600009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 (11/10 확정): 3개월 4.24→4.30, 2년 4.56→4.73, 10년 4.88→4.98 (+0.10%p), 30년 5.26→5.35. 10년-2년 차이 +0.25%p. 물가 충격에 금리 전 구간 상승. [계산]
- 한국 국채 3년 3.733% (+0.107%p)로 큰 폭 상승. 일본 30년물 3.935% (+0.065%p, 진행 중).
- 유가: 트럼프 '전쟁 사실상 종료' 발언에 전날 브렌트 89.16달러까지 두 달 최저로 밀렸다가, 호르무즈 해협 공격 지속(10월 37척, 11월 들어 10척)과 미 해상 봉쇄 유지에 반등. 11일 브렌트 92달러대, WTI 86달러대 (진행 중). 골드만삭스는 장기 전망을 올리며 2027년 140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소매 연료가: 항공유 갤런당 4.198달러, 경유 4.823달러 (11월 2~6일 주). 그 이후 주차는 아직 미게시.
- 금 4,054달러 (+0.6%, 진행 중).
출처: 머니컨트롤, 미 재무부, EIA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markets/oil-prices-rebound-after-brief-dip-below-90-as-us-iran-war-uncertainty-hormuz-attacks-continue-brent-over-92-wti-near-87-14076819.html

■ AI 가격 신호 3종 (11/10 미국장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의 온도를 재는 세 가지 온도계입니다.
1. 반도체 대 나스닥 괴리: 최근 20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8.11%, 나스닥 -7.86%로 괴리 -10.24%p. 전날(-10.69%p)보다 소폭 축소. [계산]
2. 빅테크 대 취약 AI 평균 낙폭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메타·알파벳) 평균 -19.90%, 취약 5종(팔란티어·아이온큐·코어위브·오라클·블루아울) 평균 -40.69%.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9.18% (전날 -8.50%보다 소폭 깊어짐). [계산]

[판단]

- 기조: '물가·금리' 축과 'AI 신뢰 회복' 축이 정면으로 부딪힌 날, 오늘은 AI 축이 이겼습니다. 코어위브가 매출 예상을 뚫고 앤트로픽 로드쇼에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장은 빅스텝 공포에도 반도체가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들인 점이 무게를 더합니다.
- 다만 반등의 질은 '선별적 해빙'입니다. 앤트로픽 같은 최상위는 조달 규모를 키우는 반면, 네오클라우드(하위 차주)는 채권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가 이어집니다. 네비우스는 첫 하이일드(고금리) 채권 발행을 접었고, 람다는 투자유치 희망 가치를 낮췄으며, 엔스케일은 상장을 12월로 미뤘습니다. 돈이 'AI 전체'가 아니라 '이길 몇 곳'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 물가 축은 별개의 위험입니다. 세 달 연속 강한 물가에 연준 인사가 0.5%p 인상을 입에 올렸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루 0.10%p 뛰며 한국·일본 금리도 따라 올랐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높은 가치평가를 받는 AI 주식 전반이 부담을 받습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1) 11/19 앤트로픽이 올린 가격으로 상장을 마치면 A 조건(자금조달 경색)을 해제 쪽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2) 11/17 엔비디아 실적과 독립 조사 결과가 D 조건과 오너 리스크를 가릅니다. (3) 실제 빅스텝이 단행되면 금리 축이 시장의 주도 변수가 되어 반등 기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375.36 아래일 것" - T+1(11/12), T+5(11/18, 수)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어제와 닷새 전의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10 판단: "코스피 종가가 5,239.13 아래일 것" (T+1, 11/11 검증) → 실제 종가 5,375.36. 빗나감.
- 11/4 판단: "코스피 종가가 5,683.80 아래일 것" (T+5, 11/11 검증) → 실제 종가 5,375.36. 적중.
- 해석: 빗나간 건은 빅스텝 공포보다 반도체 수급(코어위브·앤트로픽)이 강했던 날의 방향을 못 맞춘 것입니다. 적중한 건은 닷새 전 하락 기조가 유지된 경우입니다. 누계 27건 중 15건 적중.
- 한계: 이 복기는 '종가가 어제보다 낮을지'만 맞추는 단순한 규칙의 성적표이고,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관측이라 독립적인 시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력의 증거가 아니라 참고 기록입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AI 위험 오각형 신호등

2026-11-11 (수요일) 기준 · 충족 2 · 미충족 2 · 미확인 1
D(HBM 전망) 미확인으로 단계 유보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유지). 네비우스가 첫 하이일드 채권 발행을 철회했고, 데이터센터·칩 연계 채권 발행 일부가 보류 중입니다 (로이터 11/9). WSJ은 코어위브·네비우스·엔스케일 같은 네오클라우드가 최근 채권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고 전했고, 은행들은 앤트로픽·구글이 보증하는 건에도 대출을 꺼린다고 합니다. 반면 앤트로픽은 수요 강세로 공모가 상향을 검토 중이어서, '최상위는 열리고 하위는 닫히는'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1/19 상장이 상향된 가격으로 완료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출처: 로이터, 온인베스트(WSJ 인용)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anks-investors-grow-wary-of-ai-debt-spooked-by-marketselloff-5011246
https://en.oninvest.com/article/wsj-weak-links-suffer-first-as-high-yield-bond-market-all-but-closes-to-neoclouds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최근 30일 새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24 오라클 건은 30일 창 밖). 베어드가 오라클·코어위브의 공사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전망일 뿐 확정 사실이 아닙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아폴로 -14.5%, KKR -12.5%, 블랙스톤 -17.9% (11/10 종가). 반등으로 기준에서 멀어졌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회사 공시 하향은 없고 삼성·SK는 '완판'을 유지합니다. 다만 모건스탠리가 두 회사 목표가를 최대 38% 내리고 엔비디아를 최선호주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가 경고가 잇따릅니다. 이는 회사 공시가 아니라 브로커 판단이므로 미충족이 아니라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11/17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확인점입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버노바·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GE버노바가 -32.2%로 기준 아래를 회복했고, HD현대일렉트릭 -70.3%, 효성중공업 -58.6%, LS일렉트릭 -59.9%로 한국 3종도 기준 아래입니다 (한국 3종 11/11 마감, GE버노바 11/10 종가).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A와 E 2개('3단계' 해당).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 (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